

‘창립 50주년’ 포스코 정기임원인사

# 조직전문성·솔루션마케팅 강화

철강사업본부장에 정탁  
포항제철소장에 오형수

포스코가 9일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포스코는 통상 2월초 시행하던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시기를 약 한달여 앞당겨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100년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장을 위해 조직전문성 및 솔루션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확대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철강솔루션마케팅실 산하에 ‘글로벌품질경영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글로벌 솔루션마케팅 강화를 위해 베트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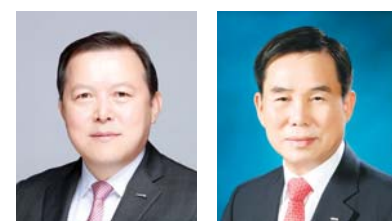


정탁 철강사업본부장 오형수 포항제철소장

중국에 ‘솔루션마케팅센터’를 각각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여기에 강건재열연마케팅실을 강건재마케팅실과 열연마케팅실로 분리해 포스맥 등 월드 프리미엄급 고급 강건재 시장 선점에 나선다. 임원 인사의 경우 정탁 철강사업전략실장과 오형수 장가항법인장이 부사장

으로 승진, 철강사업본부장과 포항제철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성과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다양성 제고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여성임원급 2명을 발탁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로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명장 중에 처음으로 상무보가 탄생했다. 이번에 상무보로 승진한 손병락 명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77년 입사해 2015년 명장으로 선발됐으며 현장 전동기 기술분야의 1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포스코 사내이사와 주요 출자사대에 대한 인사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롯데 오늘 임원인사... 황각규 승진 귀추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 허수영 화학BU 사장

롯데그룹이 오는 10~11일 양일간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신동빈 회장의 복심으로 그룹 내 2인자로 떠오른 황각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르면 10일부터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33개 계열사는 10일, 롯데건설, 롯데상사, 대흥기획 등 9개 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한다. 그간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는 연말에 진행했지만 지난해 신 회장의 재판 일정 등으로 연초로 미뤄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임원인사가 큰 변화보다는 조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이 무산된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사장)와 허수영 화학 사업부문(BU) 사장의 승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사장은 롯데케미칼로 입사한 뒤 1995년부터 그룹에서 신규 사업 및 M&

A, 해외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초 조직개편 후 경영혁신실장을 맡아왔으며 롯데지주 출범 이후 신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겸임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과 재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최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도 지난해 롯데그룹 내 화학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승진 가능성은 높다. 롯데 관계자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각 계열사 이사회를 거친 후 2018 임원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황 사장의 승진 여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한화테크윈, 사전 협의 없이 본사 이전

### 한화테크윈

본사이전 앞두고 노사갈등 불거져 사측 강행에 우회적 정리하고 해석도



한화테크윈 창원 엔진부품 신공장 전경.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본사 이전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직원들은 급작스런 이전에 응하기 어려운 만큼 퇴사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9일 한화테크윈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에 있는 본사를 오는 3월 경남에 위치한 창원2사업장으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2사업장은 항공기 엔진 등의 생산설비가 위치한 곳이다. 본사 이전에 대해 한화테크윈은 현장경영 강화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경영진이 현장과의 밀접성을 높여 사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경영진의 강력한 현장지휘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해야 고객들이 요구하는 원가절감을 충족하고 해외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물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엔진회사로서 영업·지원인력들이 제조현장을 알고 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1~2년 후 생산에 돌입하는 수주사업 특성상 성공을 위해서는 영업·지원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화테크윈 본사가 창원2사업장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근무하는 한화테크윈 영업·지원 인력 120여명도 오는 3월 1일까지 거처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통보와 촉박한 시일, 사측의 미진한 지원 등으로 한화테크윈 직원 상당수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이전에 대해 한화테크윈의 한 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여성인력은 모두 퇴사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남편 직장이 서울에 있고 아이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2달여 남짓한 시간을 주고 창원으로 이사하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며 “가정이 파탄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냐”고 답답함을 털어냈다. 또 다른 직원은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면서 회사의 이주 지원방안으로 전세자금 1억원을 빌려주는 것이 전부”라며 “지금 사는 집을 뺄 시간이 부족하거나 사측이 제시한 지원금으로는 전셋집도 못 구한다”고 지적했다. 창원2사업장이 위치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일대 84㎡ 아파트 전세금은 모두 2억원이 넘는다. 다른 한화테크윈 직원은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전 후의 청사진을 제시

해달라는 질의가 나왔지만 사측은 이에 답하지 못했다”며 “임직원을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못했고 이주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이주와 퇴사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주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회적인 정리하고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4년 12월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며 100% 고용승계와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4년 매각 당시 4324명이던 삼성테크윈 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 9월 4255명으로 줄었고 회사 분할 전인 2017년 3월에는 4123명으로 감소했다. 2년여 만에 201명이 퇴사했다. 한화테크윈은 이에 대해 “본사 이전에 대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은 아니다. 현재 각 사업부별로 대표자를 선정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측의 제안과 구성원들의 요구에 차이가 커서 아직 지원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최대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3월 1일까지 창원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성 기자 sesung@

## 정부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본격화

산자부, 선도프로젝트 위한 TF팀 구성 2022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에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

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 산업부 총예산의 약 30%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산업부 담당 국장을 비롯해 5개 분과로 구성된 산·학·연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는 20여명이 참여해 프로젝트별로 2022년의 목표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연차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실증·상용화, 시장창출, 규제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구체적인 이행과제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018년은 무엇보다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발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산업 혁신성장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TF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유영민 “한국의 희망, 사람중심 과학기술·ICT에 있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혁신’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이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 대한민국, 국

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렸다.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의 교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ICT대연합) 공동주최로 매년 열린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회 회장과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통신 3사 수장 중에서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박정호 SK텔레

콤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 2018’ 일정으로 불참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교육부와 ‘한국형 나노디그리(가칭)’ 사업협력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약 6400명의 과학기술계 인사·일반국민의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반영돼 선정된 ‘2017 10대 과학기술 뉴스’ 영상 상영 후 올해 과학기술계를 조망하는 ‘2018 세대 간 대화’가 진행됐다. 대화에는 유영민 장관을 비롯한 10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60대까지의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6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고 느꼈으며, 융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의 세계적인 연구 개발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